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될 일 하겠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린 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법회에서 “앞으로 관음종은 복을 비는 종단이 아니라 복될 일을 하는 종단이 되겠다”고 500여 사부대중 앞에서 서원하고 있다.



이날 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 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등 주요 내빈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법회가 끝난 뒤 2부 행사로 열린 (사)선아예술단의 전통춤 공연. 난타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율동이 인상적이다.

관음종 창종 50주년 법회... 10월 7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봉행

“복을 비는 종단이 아니라 복될 일을 하는 종단이 되겠습니다. 종교적 활동은 물론이고, 문화적 가치 창조를 통해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 종단이 되겠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이같이 앞으로의 계획을 힘찬 어조로 밝혔다.

대한불교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창종 50주년을 맞아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탑골공원은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홍선 스님이 한국전쟁 이후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2년 여 간 거리설법을 펼쳤던 장소라 의미가 크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이날 대회를 통해 “독립운동의 상징인 탑골공원에서 큰 스님의 독립운동의 뜻을 다시 한 번 상기함과 동시에 태허 스님께서 설립하셨던 저 팔각정을 바라보며 새로운 관음종의 50년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우리 관음종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그늘진 곳을 찾아 꿈과 희망을 그리고 빛을 비추

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홍파 스님은 “태허 조사는 절박한 현실인식과 문제 의식으로 새로운 흐름, 새로운 불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1965년 관음종의 창종을 선언하시고 그 첫 외침으로 겨레를 위해 등불과 눈이 되겠다고 종도들의 맹서를 세상에 펼치셨다”고 회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축하메시지를 통해 “자비와 원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길을 열어가시면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관음종 선대 조사들과 종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사회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도 축사를 통해 “태허 관음종 조사는 복을 구하지 말고, 복된 일을 스스로 찾아 성취하자고 주창하셨다. 태허 조사의 이러한 일성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며 “관음종이 한국불교의 중견 종단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그 꽃을 피워주시길 당부드린다. 태허 조사께서도 새로운 조

류와 역사에 맞는 불교를 주창하셨듯이 이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맞는 불교를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번 관음종 창종기념 행사에는 중국과 일본 불교협회 관계자 스님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한중일 불교 교류에 앞장섰던 홍파 스님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지타 타카시 조지 한일불교교류협회장은 “1977년에 불교홍흥과 우호

탑골공원, 개산조가 2년여 거리설법 펼친 곳 中·日 불교협회 임원진 대거참석 ‘논길’ 법회후에는 (사)선아예술단 춤공연 선사

친선을 서원하며 일본에는 일한불교교류협회의가, 한국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가 설립되면서 관음종은 그 중추적 역할을 짊어지고 오셨다”며 “홍파 스님은 협의회 발족이래 뜻을 함께하는 우인으로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사이가 됐다며 앞으로도 관음종의 융창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오양 중국불교협회 부회장도 법회를 위해 방한해 축하했다. 마오양 스님은 “한국 관음종은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으며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대승사상을 봉행하며, 중생을 교화하고 불법을 펼치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치하했다.

법회가 끝난 뒤 2부에는 한국무용의 전통적 깊이와 대중과의 예술적 소통을 위해 춤을 사랑하는 전공자들로 2011년 창단된 (사)선아예술단이 ‘개벽’ ‘희망 그리고 꿈’ ‘기원’ ‘화합’ 등 총 4막으로 구성된 전통춤을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는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다케시 각초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정사, 김영종 종로구청장,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명종 △관음종가(관음종합창단) △개회선언(관음종 포교원장 대홍 스님)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관음종 원로위원 법륜 스님) △대회사 △관음종 약사 소개(관음종 총회위원장 스님) △축사 △축하공연(선아무용단) 순으로 진행됐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관음종 주요 연혁 (2015. 10. 02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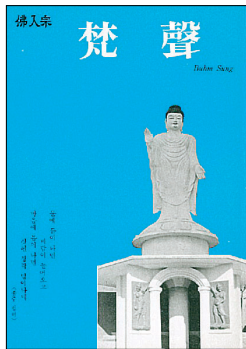
- 1957 03. 10 일승 불교 현정회 설립
- 1965 12. 05 대한불교불입종 개산 태허당 홍선 대법사 1세 종정 추대
- 1965 12. 08 불교재산 관리법 하에 대한불교불입종(1988년 관음종 개명) 창종
- 1971 02. 25 불교도 남북통일기원 대법회 (서울운동장)
- 1973 01. 15 월간 <법성> 창간호 발행
- 1979 07. 17 대한불교관음종(불입종) 1세종정 태허당 홍선 대조사 열반(음 6.24)
- 1979 11. 대한불교관음종(불입종) 2세종정 백성 경조 선사 추대
- 1988 01. 15 제3세 철운 종현 대조사 종정 추대
- 1988 05. 28 대한불교관음종으로 종명 개명
- 1989 06. 12 제1회 국제보살계 수계식 및 영산 대법회
- 1989 11. 10 제4세 은호 대진 대조사 종정 추대
- 1990 09. 제1회 국제학술대회
- 1993 06. 27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영산대법회
- 1995 06. 27 광복 50주년 기념 및 생전예수제 영산대법회
- 1998 07. 10 국난극복 및 생전예수제 영산대회 대법회
- 1999 10. 26 제5세 운공 혜음 대조사 종정 추대
- 2003 06. 07 총본산 낙산 요각사 복원불사 준공
- 2003 11. 19 제6세 남천 종진 대조사 종정 추대
- 2004 10. 08 태허대조사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보살계 법회
- 2006 03. 10 세계평화기원 영산대회 봉행(사)선아예술단(4부5일)(문광부 후원)
- 2007 04. 06 서울불교문화대학 개원
- 2009 08. 14 태허 조사스님 열반30주기 다례법회 봉행
- 2009 10. 15 제1회 한국불교전통문화 체험 사업(4박5일)(문광부 후원)
- 2010 02. 10 불교성전 발행(8회증보판) 전국 사·암 배부
- 2010 11. 23 개산조 태허 조사 ‘일대사 인연을 말한다’ 논문집 발간 및 학술발표 대회
- 2011 12. 04 제5회 국제보살계 불행(장년 법성사)
- 2012 10. 10 태허 조사 탄신 108주년 국제학술대회 봉행
- 2012 10. 11 원통보전 11면 관세음보살 봉안 및 템플스테이 전용관 개관(낙산 요각사)
- 2013 04. 15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초청 기원대법회 봉행
- 2013 10. 10 “한대불교 되돌아 본 50년 그리고 깨달음” 국제학술대회(문체부 후원)
- 2014 01. 10 창종 50주년 기념사업 실행위원회 발족
- 2014 10. 17 “한국불교문화의 전승과 실제 학술대회” 개최
- 2014 11. 01 순천 조계산 선암사 태허 조사 탐미 부도 봉안
- 2015 05. 06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을 관음종복지재단으로 명칭 변경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의 법문 모습



1988년 홍파 스님이 판문점서 조볼련 대표와 접촉 이행하고 있다.



1973년 <법성> 창간호 표지



2006년 3월 8일 미국 해병대사령부서 열린 평화기원 영산제

대한불교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 대법회 봉행에 대한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0월 7일 ‘대한불교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 대법회’를 성대히 봉행하였습니다.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참석해 주신 교계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종도 여러분과 제방의 큰스님들 정부인사 및 사회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화환과 축전 등으로 축하를 해 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헤량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아울러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널리 헤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9(2015)년 10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이 홍 파

